

가격경쟁이 진정한 품질경쟁으로 이어지길



이 승 연
〈주부〉

남 아 있는 기름의 양을 알려주는 계기판의 바늘이 'F'와 'E'의 중간 부분을 조금만 내려와도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딱딱 채워 넣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E'에 근접해야 주유소를 찾고 일단 가서도 「꼭 채워주세요」란 말하기가 무서워졌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출퇴근할 때 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거의 규칙적으로 주유소에 들르곤 했었다. 그래서 기름을 채우러 갈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돈이 매번 다르게 붙어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보니 차를 갖고 다니기가 부담스러워진 것이 사실이다.

처음 유가 자유화가 실시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기름값 인상을 걱정했었다. 그동안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몰라도 정부가 상한가를 결정하고 그 안에서 정유사들이 가격을 결정해 왔으니 그 상한가가 없어지고 나면 기름값은 당연히 오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를 확인시켜 주

기라도 하듯, 유가자유화가 실시된다는 올해 1월이 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기름값은 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그때는 국제 유가의 변동 또는 환율 등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아무튼 올 1월이 되면서 기름값은 더욱 올랐고 따져 보면 지난해 1월보다 자그마치 30% 이상이 올랐다고 한다. 차를 운행하는 것이 곧 돈으로 이어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조금 편하기 위해서 차를 굴리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크기는 마찬가지다.

사실 기름값이 비싼 것은 세금 때문이라고 한다. 기름값의 6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하니 말이다. 이번에 유가자유화 이후로 기름값이 인상되는 것도 그동안 정유사나 대리점, 주유소가 얻는 이익이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 아무튼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름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 교통체증

을 생각한다면 기름값을 올려서라도 차 운행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마이카 시대로 접어들었고, 쉽게 차를 버릴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차를 갖고 다니기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는 나로서도 차를 쉽게 버리지는 못하겠다. 그동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약간의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 차에 이상이 생겨 공장에 들락거릴 때, 꽤 부담이 되는 보험료나 세금을 낼 때마다 차는 그야말로 애물단지였다. 하지만 차는 마약이다. 한번 차 굴리는 맛을 들이고 나니 헤어나기가 참 힘들다. 가까운 거리이고 버스로 한 번이면 쉽게 갈 수 있는 곳도 당연하다는 듯이 차를 몰고 나가게 된다. 가끔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로는 10분 거리, 승용차로는 1시간」라는 지하철 내의 광고문구를 보면서 『정말 그렇지』 궁정은 하면서도, 또다시 그 끔찍한 교통체증을 감수하고 마니,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된 것 아닌가 싶다.

이런 마약과 같은 차의 성질은 비단 나한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휘발유 가격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거리에 차가 줄었다거나 주유소 손님이 뜸해졌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다. 결국 기름값의 인상은 교통체증 해소에도, 우리나라의 원유수입을 줄이는데도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지속적인 가격 인상이 결국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와 같은 소비자들은 「올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기름값을 어쩔 수 없이 치를 수밖에 없다.

저의 비슷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정유사마다 가격이 다르고, 지역이나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르다. 다행히 내가 이용하는 기름을 생산하는 정유사는 타정유사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했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 떨어진 직영주유소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그곳을 찾고 있다. 그런데 주유 사람들 경우를 보면 아직까지 기름값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가격이 싼 주유소가 어딘지 알아보고 찾아가는 노력을 별로 안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그 주유소의 기름 가격을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써붙여 놓

은 곳이 드물어서 싼지 비싼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국의 주유소를 보면 상호보다도 가격을 보여주는 게 시판이 더 큰 것이 보통이라고 하는데 말이다. 유가자유화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일부러 가격 밝히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업체들간 경쟁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기술 투자도 이루어지고 제품의 품질 향상에도 더욱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가 자유화로 가격을 무작정 올리고, 그 이익으로 기업을 살찌우는데만 쓴다거나, 혹은 정유사들이 담합하여 폭리를 취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된다. 정유사들의 휘발유 품질경쟁이 벌써부터 시작되긴 했다. 그런데 그 품질의 차이라는 것이 운전자가 쉽게 느끼기가 힘들다. 또 휘발유가 좋다고 해서 차를 5년이고, 10년이고 굴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얼마전 「추적 60분」 방송에서 고발한 것처럼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정유사들이 제품교환을 관행처럼 해오고 있었다고 하니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가며 자기네 회사의 기름이 좋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 상태에서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이니 솔직히 품질도 그대로 두고 기름값도 올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슬쩍 든다. 그러나 어차피 가격을 올려야만 한다면 정유사들은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품질경쟁을 하는데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운전자가 기름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요즘 환경기업, 환경산업 등 말이 많은데, 자동차로 인한 공해가 생기지 않는 획기적인 기름을 개발하여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서울로 만들어 준다면야 비싼 기름값이 아깝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주유소들은 보다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같은 가격경쟁이 기름값 인상의 결과만을 나올 것이 아니라 좋은 품질의 기름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소비자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